



##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협력사업

### 북한 청소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도적 보건의료지원

보건의료봉사에는 울타리가 없다. 사람의 생명은 그 생명이 탄생한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에서 벌이고 있는 인도적 대북 의료지원사업은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생명존중사상과 인류애의 발현이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봉사를 수행해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도적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기생충질환예방을 위한 구충약품과 임상진단을 위한 기초검사 장비 및 시약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이다.

2001년 5월 17일, 기생충퇴치를 위해 북한 조선의학협회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어린이 시설과 학교 보건실에 구충약품 및 구급의약품을 지원하고, 지역 병원 단위 검사실에 장비와 기자재, 검사시약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렇게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계기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기생충 교육용 자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온 후 부터였다. 당시 기생충감염이 심각했던 북한에 장내 기생충진단지침서와 구충약품을 지원하면서부터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2년 9월 27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인도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2004년 12월 21일에는 보건의료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의 경증질환 치료를 위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다.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남포육아원 방문 및 구급약품 지원  
(사진 좌측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우철 사무총장, 이순형 회장, 윤창하 검진관리본부장)





또, 2005년부터는 통일부로부터 남북 협력기금을 지원 받아 평양과 남포, 평안남북도 인근 지역의 어린이 시설과 학

교 보건시설에 구급의약품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개성과 황해남북도 지역에 걸쳐 2,10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 11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하여 북한 주민건강증진 프로젝트 일환으로 북한 기생충관리 기술전수 및 교육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의료분야의 보건증진을 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매년 검진사업단을 파견할 계획

이다.

협회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37억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1,200만 명분의 구충약품과 검사장비, 검사시약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의 청소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생충연구소를 건립하고, 검사장비와 기자재, 의료 기술전수를 위한 교육협력, 구충약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어린이의 경증질환 조기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도, 구급의약품 지원,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병원 검사실의 장비와 기자재, 검사 시약 등을 지원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개성공업지구 남측 체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협회는 지난 '07.9.18~19까지 개성공단 홍보관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으로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의 검진인력과 종합검진차량을 통해 이루어졌다. 건강검진 종목은 빈혈, 혈당, 고지혈증, 간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심전도 검사, 위장촬영, 유방촬영, 상복부초음파 등이었다. 이번 개성 공단 건강검진을 계기로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뿐 아니라 북측 근로자의 건강검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물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